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최경란** · 홍지영***

초 록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북도의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다문화가정 청소년 120명을 대상으로 부모애착 척도, 학교적응 척도,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과 AMO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부모애착, 문화적응스트레스, 학교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모애착과 학교적응의 관계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부모애착과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학교적응과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관계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둘째, 부모애착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부모애착과 학교적응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애착은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도 관계되며, 문화적응스트레스를 통해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 관계 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부모애착과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관계를 확인하고, 부모애착과 학교적응 관계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매개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힌 것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 상담과정에서 부모애착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대한 청소년시기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적응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다문화가정 청소년, 부모애착, 학교적응, 문화적응스트레스

* 본 연구는 최경란(2018)의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박사과정

***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교신저자, jiyounghong@jj.ac.kr

I. 서 론

최근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국제결혼과 외국인 거주자의 증가로 한국사회는 다문화, 다인종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180만명에 육박하며 이는 한국 주민등록인구 대비 3.4%에 해당한다(행정안전부, 2016). 이는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이어져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의 학생 수는 2016년 10만명(전체 학생수의 1.7%)에 달하며, 다문화가정 자녀세대의 학령기 진입에 따라 그 증가 추이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교육부, 2016).

학교현장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사회는 여전히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합의가 충분하지 못하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특혜, 편견, 비다문화가정의 역차별감 등은 다문화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갖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기본적으로 이중문화를 경험하면서 부모와의 문제에서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출발한다(전성희, 2010). 다문화로 인한 놀림, 따돌림, 편견을 경험하고, 언어발달의 지연에 따른 학업부적응 등 학교적응 과정에서 정체성과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한다(오성배, 2005; 이영주, 2007; 조영달, 2006).

이러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어려움은 학업중단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교적응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정해숙 등(2016)의 연구에 의하면 전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학률은 84.5%(비 다문화 90.2%)이며, 15.5%는 졸업이나 중퇴, 또는 비진학의 이유로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 18세 이상 고등교육기관의 진학이 49.0%(비 다문화 70.8%)에 그치고 있었다. 학교 환경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적응은 향후 사회진입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청소년시기에 맞는 적절한 개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기 발달과업과 동시에 이중 문화 적응이라는 환경적 요인에 의한 다양한 문제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다각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적응에 있어 가족의 환경 및 배경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주동범, 1998), 가정환경에서 부모의 영향력은 사회적 관계가 증가하는 청소년시기에도 지속된다. 더욱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비 다문화가정 청소년보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고민을

부모와 더 상의하는 경향(정해숙 등, 2016)이 있어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청소년기 부모와의 친밀한 애착감정은 부모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자신의 편이 되어 줄 있다는 믿음을 주어 청소년기 발달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청소년기에 있어서 부모의 애착은 정서적 안정감을 위한 완충적 역할(Papini & Roggman, 1992)을 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과 유의미하게 관련이 있다(Armsden & Greenberg, 1987). 따라서, 부모애착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심리적 안녕감을 기반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고, 학교에서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학교적응에 유의미하게 관련되며, 선행연구(이진숙, 정혜정, 2004; 황미경, 허균, 2010)가 이를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최근 제기되는 요인은 이중 문화로 인한 문화적응스트레스이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태어나면서부터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고 성장하면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중 문화를 경험(금명자, 이영선, 김수리, 손재환, 이현숙, 2006; 김민정, 김희영, 2015; 김승경, 양계민, 2012; 은선경, 2010)하고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중 문화의 적응과정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불안정한 지위와 취약한 권력으로 주류문화로의 동화를 요구받게 되고 부정적인 편견, 세대간의 문화적응 수준의 차이, 이중 언어 유창성에 대한 압박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Berry, 2003).

이러한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있어 청소년기 발달과업과 맞물려 학교적응에 관련되며, 학교적응에 주요하게 밀접한 부모애착과 연관되어 있다. 학교적응의 사회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애착의 내적작동모델(Bowlby, 1969)과 관련된다. 문화적응이라는 스트레스 사건을 해석하고 지각하는데 있어 애착의 내적작동모델에 따라 부모와 안정애착을 형성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문화적응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과대하게 지각하지 않지만,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은 스트레스를 극단적이거나 위협적으로 평가(Shaver & Mikulincer, 2007)하게 되면서 문화적응스트레스는 학교적응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이중 문화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부모애착과 긴밀하게 연관되며 청소년기 발달단계에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또래나 다른 사회 집단의 영향과 함께 다문화가

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적응에 관계 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부모애착이 어떻게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관련하여 학교적응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탐색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애착과 학교적응(이유경, 2012; 이윤희, 2009; 전성희, 2010; 황미경, 하균, 2010 등),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적응(이상균, 박현선, 노연희, 이채원, 2012; 이지영, 2016; 삼미영, 이돌녀, 박종옥, 2013)의 관계를 살펴는 등 각 각 파편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강유임(2012)과 은선경(2010)의 연구에서 부모관계와 문화적응스트레스, 심리사회적응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대다수의 연구가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애착과 적응, 가족의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청소년기는 정서적 불안과 신체적, 심리적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사회적 압력이 증가하는 시기로 크고 작은 여러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진다. 더욱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발달상의 스트레스와 더불어 자신의 이중문화에 대한 정체성과 주류문화에의 적응을 요구 받게 되는 등 다양한 적응과정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때 적응과정의 어려움을 지지 받을 수 있는 부모의 애착관계를 부모애착에 한정하는 것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부모애착을 포함한 부모애착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관계를 확인하고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을 이해하고, 심리상담의 적절한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가설은 다음과 같으며,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가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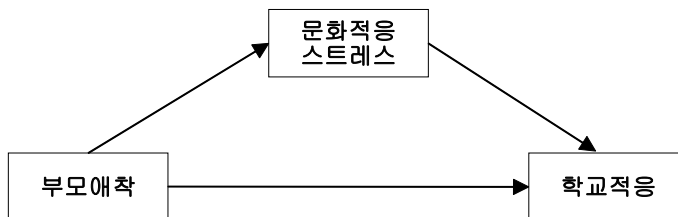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I. 이론적 배경

1. 학교적응

청소년들에게 있어 학교는 단순히 지식 전달의 장이 아닌 새로운 사회적 환경 속에서 조화롭게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는 점에서 청소년기의 학교생활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학교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은 학습과 제회피, 낮은 학업동기, 학교참여 및 학습준비의 부적합, 학업성적 부진 등의 학업적 부적응을 초래하며(Spencer, 1996),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며 불안, 위축과 같은 내재적인 문제행동과 공격행동, 비행, 탈선 등의 외현화 행동문제를 표출하게 한다(Reinert, 1976). 또한, 학교적응의 문제는 단순히 청소년기의 문제가 아닌 성인기까지 연결되어 다양한 사회 부적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청소년기 학교적응의 실패는 사회적 능력 발달을 저해하여 성인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Dubois, Eitel & Felner, 199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비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비교해 볼 때 학교적응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 한국어가 미숙한 어머니의 양육으로 인하여 언어발달에 지체를 보이며,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외모가 다르고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놀림을 받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등 학교생활의 부적응을 겪고 있다(김순중, 2007).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다른 아이들과 자신의 외모를 비교하며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인해 또래나 교사들과의 대인관계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오성배, 2007). 즉,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외모가 친구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친구들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소개해주기를 싫어하고 숨기려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 경제적으로도 열악하여 학습에도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학습지연은 학교 중도탈락의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정해숙 등, 2016).

2. 부모애착과 학교적응

애착은 영아가 자신의 주된 양육자인 부모와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갖고 그 관계를 유지하려는 정서적인 결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애 초기에 형성되어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성영혜, 2000). 애착관계는 청소년기에 이르러서는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친구들의 영향이 중요하며(Blos, 1967), 부모가 일방적 권위를 지니는 애착관계에서 벗어나 상호성을 향한 관계의 재협상이 이루어진다(Grotevant & Cooper, 1985).

즉, 청소년기에는 부모에게 갖는 안정감의 느낌에서 부모의 실제 여부에 의한 영향은 줄어들고, 언제나 자신이 필요로 할 때 자기편이 되어 줄 수 있다는 신념으로 변환된다(Armsden & Greenberg, 1987). 이는 청소년이 맺는 부모와의 관계의 본질이 이후의 성인기 삶 전반에 걸쳐서 적응에 영향을 주며 사회화에 대한 감정적인 평안함, 불안이나, 우울에 대한 취약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이지윤, 2000)한다. 부모애착은 나이가 들어 애착대상에 대한 행동과 상호작용이 줄어들더라도 부모는 여전히 중요한 대상이며(Rice, 1990), 부모가 자신을 항상 지켜준다는 확신은 청소년들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Weiss, 1982).

이와 관련된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불안장애의 문제를 갖게 되며, 부모와의 애착이 잘 형성된 청소년들의 경우 대인관계를 비롯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이진숙, 정혜정, 2004), 자신의 생활에도 만족하였으며(유안진, 이점숙, 정현심, 2006a), 외로움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도현심, 1999). 따라서 청소년들의 부모애착은 청소년의 적응 및 정서적인 안정감을 위한 완충적인 역할(Papini & Roggman, 1992)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녕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Armsden & Greenberg, 1987).

이처럼, 생애 초기 형성된 애착은 이후 관계형성을 중심으로 사회화가 확장되는 청소년기의 학교생활적응에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학교에서의 적응문제는 청소년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런 관점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애착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이사라, 박혜원, 2005; 이윤호, 2009; 황미경, 허균, 2010)은 부모와의 애착이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가장 좋은 예측변인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부모애착을 다룬 선행연구가 대부분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모

애착을 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일부 부와 모의 애착을 다룬 연구(이윤희, 2009; 황미경 외, 2010)에서는 부애착이 학교적응에 유의하지 않거나 혹은 사회적 불안과 또래와의 대인관계를 더 설명하는 등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청소년기의 부모애착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청소년시기에 진입한 다문화가정 자녀세대의 학교 재학비율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에서 이들 청소년에 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적절한 개입과 다문화 교육지원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적응

한편, 문화적응과 관련하여 이미 형성된 서로 다른 문화집단이 접촉을 통해 상호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고통과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문화적응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라고 한다(Berry, 1997). 즉,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영향으로(Berry, 2002),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심리적 곤란 또는 낯선 관습과 사회적 규범을 경험하는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 혼란과 부적응 행동의 일반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은선경, 2010). 이러한 문화적 변화에 대한 적응, 또는 저항의 과정은 매우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이민자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다른 어려움들 중에서도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불안함, 낮은 자존감, 정체성 혼란, 알코올 중독, 약물 복용과 연관이 있고(Barrett & Sonderegger, 2002), 개인에 의해 경험되는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수준은 낮은 수준에서부터 계속 살아갈 능력을 가시적으로 파괴하는 수준까지 다양하였다(Torres, 2010).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한국문화와 어머니의 소수문화를 동시에 경험하는 본질적 속성으로 인해 문화적응의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결혼 이주여성인 어머니가 겪는 문화적응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자녀에게 전달되어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이영주, 2007), 어머니와 청소년간의 문화적응에 대한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 역시 다문화가정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중 문화 적응을 더욱 심하게 경험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은선경, 2010).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우울과 불안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별감과 소외감, 주변화의 느낌을 경험하게 하고 열등감과 불신,

정체성 혼란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며(Berry, 1997), 높은 수준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다문화청소년 개인의 대처능력을 감소시켜 학교적응의 문제를 초래한다(김은경, 김중남, 2016; 은선경, 2010; 이상균 외, 2012; 진은영, 2016; 최선화, 2009; Sirin, Ryce, Gupta & Rogers, 2013).

4. 부모애착, 문화적응스트레스, 학교적응의 관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가장 많은 관계와 애착을 형성하는 것은 가족관계, 특히 부모와의 관계이며 이는 자녀의 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다. 부모와의 관계는 다른 어떤 지지체계보다 큰 의미가 있으며(은선경, 2010) 부모자녀의 애착관계에 대한 중요성은 충분히 강조되어 이미 많은 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애착은 스트레스, 불안 등 정서적인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애착유대를 이해하는 것은 일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적응을 예상하는데 필수적이며(Lopez & Brennan, 2000), 이는 당연히 소수자들과 이민자들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부모애착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으며, 부모애착과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관계를 통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보다 다각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스트레스와 애착유형과의 관계를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애착유형으로 연관하여 살펴보면, Van Oudenhoven과 Hofstra 등(2006)의 애착유형과 문화적응태도의 관계 연구로 설명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상황에서 타인과 상호작용 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네 가지 다른 종류의 애착 유형(안정형, 거부형, 의존형, 두려움형)은 Berry(1997)가 구분해 놓은 문화적응 태도와도 관련이 있음을 밝혔으며(Van et al., 2006), 이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학교라는 상황에서 경험되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애착의 유형과 관련하여 대처하는 방식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선행연구를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의 학교생활적응에 관여하는 여러 요인들 중 부모와의 애착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요소이며 이는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즉, 문화적응스트레스와도 긴밀하게 관계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 애착과 학교적응,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부모애착과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로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출신 어머니로 구성된 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통상적으로 청소년을 중고등학생으로 한정하여 연구하고 있으나, 최근 청소년의 조숙한 경향을 반영하여 만 11세~만 18세까지를 청소년의 범위로 정하고 학교에 재학하는 비율이 높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생까지의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표집은 전라남도·북도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연구에 대한 협조와 승인을 구하고, 자발적 참여와 부모동의를 구한 후 실시하였으며 수집기간은 2017년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총 150부 배포하여 최종 120부의 설문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는 전주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jjIRB-170614-HR-2017-0606).

2. 측정도구

1) 부모애착척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 (1987)가 제작한 부모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를 옥정(1998)이 수정, 번안(IPPA-R)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 감정을 존중해준다,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어떤 일로 기분이 상했을 때 알아차리신다” 등 청소년들의 정서적 욕구에 대한 부모 반응의 안정성과 의사소통의 질,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소외감의 3가지 영역을 측정한다. 척도의 응답은 4점 Likert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부애착 .92 모애착 .92이며 하위요인별 의사소통은 .91,

신뢰감 .90, 소외감 .83이다.

2) 학교적응척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이규미(2005)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를 발전시켜 일반화한 이규미와 김명식(2008)의 학교적응척도를 사용하였다.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 학교에는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많다”와 같이 학교적응에 대한 개념을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 등 4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된 38문항으로 측정한다.

척도에 대한 응답은 4점 Likert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 학교적응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학교공부 .84, 학교친구 .91, 학교교사 .90, 학교생활 .87이며 전체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95이다.

3) 문화적응스트레스척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Sandhu와 Asrabadi(1994)가 개발하고, 이승중(1995)이 한국어로 번안한 문화적응스트레스척도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를 김은경(2016)이 보완, 삭제,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여 “어머니가 외국인이라서 무시를 당한다”와 같은 다문화가정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감, 낮은 한국어 실력으로 인한 어려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소외감을 측정한다. 총 17 문항으로 5점 Likert형 척도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전체 .97이며, 하위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지각된 차별감 .96, 한국어 실력 .96, 소외감 .93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18과 AMO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의 절차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주요 변수들의 신뢰도를 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통해 검증하고, 기술통계 분석으로 자료의 이상치 및 정규성을 검토하였다. 둘째, 잠재변인 및 측정변인 간의 관련성을 상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셋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였다. 구조방정식의 2단계 접근법(Anderson & Gerbing, 1988)에 따라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히 구인하는지 확인한 후 구조모형의 전체 적합도 및 간접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와 TLI가 .90이상이고,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가 .08이하 SRMR이 .08이하이면 적절한 합치도라고 판단하였다(홍세희, 2000; Browne & Cudeck, 1993). 최종모형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랩은 원자료(N=120)에서 무선으로 만들어진 2,000개의 표본에서 간접효과를 추정하여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Shrout & Bolger, 2002).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69명(57.5%), 여학생이 51명(42.5%)으로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초등학교생 37.5%, 중학생 62.5%로 나타났다. 동거가족의 구조는 핵가족이 68.5%, 확대가족 31.7%로 응답의 절반이상이 핵가족으로 구성되었다.

표 1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범주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69	57.5
	여자	51	42.5
학교	초등학교	45	37.5
	중학교	75	62.5
가족유형	핵가족	82	68.3
	확대가족	38	31.7
모의 출신국	필리핀	43	35.8
	베트남	20	16.7
	일본	25	20.8
	중국	20	16.7
	기타	12	10.0
모의 한국어 수준	매우못한다	1	.8
	잘못하는편	4	3.3
	보통	21	17.5
	잘하는편	37	30.8
	매우잘한다	57	47.5
응답자의 한국어 수준	매우못한다	1	.8
	잘못하는편	2	1.7
	보통	9	7.5
	잘하는편	37	30.8
	매우잘한다	71	59.2
합계		120	100.0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앞서 자료의 전반적 경향을 확인하고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연구변인들의 왜도 및 첨도값의 범위는 West, Finch와 Curran(1995)이 제시한 정규분포의 기준(절대값 기준 왜도<2, 첨도<7)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들을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애착 전체의 경우 문화적응스트레스와는 유의미한 부적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적응과는 유의미한 정적관련성을 보였다. 부애착의 경우 모애착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문화적응스트레스와는 유의미한 부적상관관계, 학교적응과는 유의미한 정적관련성을 보였다. 모애착의 경우 부애착과는 달리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학교적응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부애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관련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경우 학교적응과 유의미한 부적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연구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및 상관계수(N=120)

	1	1-1	1-2	1-3	2	3	4	4-1	4-2	4-3	5	5-1	5-2	5-3	5-4
1	1														
1-1	.92***	1													
1-2	.95***	.85***	1												
1-3	.74***	.50***	.57***	1											
2	.91***	.91***	.94***	.75***	1										
3	.92***	.93***	.95***	.73***	.67***	1									
4	-.21*	-.12	-.23*	-.22*	-.24**	-.15	1								
4-1	-.25**	-.14	-.27**	-.25**	-.27**	-.18*	.96***	1							
4-2	-.10	-.04	-.12	-.13	-.15	-.04	.90***	.76***	1						
4-3	-.18**	-.12	-.20*	-.16	-.21*	-.13	.90***	.78***	.85***	1					
5	.50***	.44***	.47***	.41***	.54***	.37***	-.37***	-.39***	-.30**	-.27**	1				
5-1	.42***	.38***	.37***	.36***	.48***	.29**	-.29**	-.29**	-.28**	-.21*	.81***	1			
5-2	.39***	.33***	.40***	.29**	.41***	.30**	-.40***	-.42***	-.32***	-.30**	.81***	.48***	1		
5-3	.38***	.36***	.34***	.29**	.42***	.28**	-.22*	-.25**	-.15	-.13	.84***	.61***	.52***	1	
5-4	.50***	.40***	.47***	.46***	.52***	.39***	-.34***	-.36***	-.27**	-.26**	.88***	.70***	.67***	.60***	1
6	3.15	3.09	3.27	3.03	3.13	3.17	1.42	1.45	1.37	1.40	3.13	2.91	3.29	3.01	3.28
7	.42	.50	.44	.50	.45	.46	.60	.59	.70	.71	.47	.57	.57	.62	.48
8	-.30	-.20	-.36	-.25	-.46	-.83	1.58	1.40	1.89	1.88	.03	.30	-.93	-.12	-.20
9	-.09	-.15	-.63	-.16	-.05	1.40	1.85	1.37	2.56	2.94	-.59	-.75	.72	-.74	-.56

1=부모애착(전체) 1-1=부모의사소통 1-2=부모신뢰감 1-3=부모소외감 4=문화적응스트레스(전체)

4-1=지각된차별감 4-2=한국어실력 4-3=소외감 5=학교적응(전체) 5-1=학교공부 5-2=학교친구

5-3=학교교사 5-4=학교생활 6=평균 7=표준편차 8=왜도 9=첨도

* $p < .05$, ** $p < .01$, *** $p < .001$

3.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검증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애착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사용하여 매개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매개모형 검증에는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한 2단계 접근법을 적용하여 측정모형검증과 구조모형검증의 과정을 통해 진행하였다. 결과해석 과정에서 모형의 수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적합도 지수는 홍세희(2000)의 연구를 바탕으로 Comparative Fit Index(CFI), Tucker Lewis Index(TLI), Root Mean Square Error or Approximation(RMSEA)을 확인하였다. 이 중 CFI와 TLI의 경우 .90 이상이면 모형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하며(홍세희, 2000), RMSEA의 경우 .05이하이면 아주 좋은 모형, .08이하이면 좋은 모형, .10이하이면 보통 수준으로 받아들여진다(Browne & Cudeck, 1993). 모형 내 측정변수의 경우 각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하위요인들의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먼저 매개모형 검증의 첫 단계로 측정모형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각 측정변인들의 요인부하량은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CFI	TLI	RMSEA
측정모형	53.79**	32	.971	.959	.076 (.038-.110)

** $p < .01$

표 4

측정변인들의 요인부하량

잠재변인	측정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된 계수
부모애착	⇨ 부모의사소통	1.46	.20	.87***
	⇨ 부모신뢰감	1.45	.20	.97***
	⇨ 부모소외감	1.00	-	.59***
문화적응 스트레스	⇨ 지각된차별감	.76	.06	.84***
	⇨ 한국어실력	.97	.06	.91***
	⇨ 소외감	1.00	-	.92***

잠재변인	측정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된 계수
학교적응	⇒ 학교공부	1.01	.13	.77***
	⇒ 학교친구	.96	.13	.73***
	⇒ 학교교사	1.00	-	.69***
	⇒ 학교생활	1.01	.12	.90***

*** $p < .001$

표 3에 제시된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을 살펴보면 모든 적합도 지수들이 측정 모형의 수용을 위한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측정변인들의 요인부하량의 경우 표준화된 계수를 기준으로 .59에서 .97 사이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각 측정변수들이 해당하는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측정모형은 충분히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서 다음 단계로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조모형 검증단계에서는 부모애착에서 학교적응으로 향하는 직접경로를 제외한 완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모형비교를 실시하였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은 상호 포함모형 관계(nest-nested model)이기 때문에 χ^2 차이검증을 통해 모형의 적절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구조모형 분석결과는 표 5과 6에 제시하였다.

표 5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CFI	TLI	RMSEA
연구모형 (부분매개모형)	53.79**	32	.971	.959	.076 (.038-.110)
경쟁모형 (완전매개모형)	81.95***	33	.936	.915	.109 (.079-.139)

** $p < .01$, *** $p < .001$

표 5에 제시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을 살펴보면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이 경쟁모형의 비해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경쟁모형의 RMSEA는 모형수용을 위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비교를 위한 χ^2 차이검증 결과,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χ^2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연구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Delta\chi^2=28.16$, $\Delta df=1$, $p<.001$). 최종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6와 같다.

표 6

최종모형(부분매개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된계수
부모애착	⇒ 문화적응스트레스	-.23	.11	-.20 [*]
문화적응스트레스	⇒ 학교적응	-.23	.08	-.26 ^{**}
부모애착	⇒ 학교적응	.49	.10	.48 ^{***}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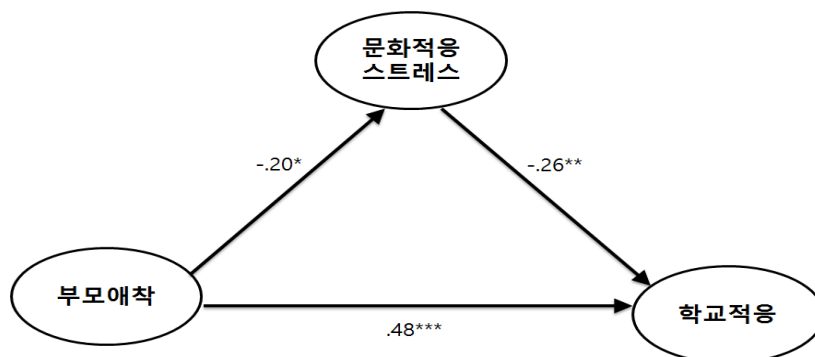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의 구조모형 검증결과

그림 2와 표 6에 제시된 최종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부모애착이 증가하면 문화적응스트레스는 감소하며,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감소함에 따라 학교적응의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애착에서 학교적응으로 이어지는 직접경로 또한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본 매개모형은 부분매개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의 마지막 단계로 부모애착에서 학교적응으로 향하는 총 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각각의 유의미성을 검증하였다. 특히 간접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스트랩 기법을 사용하여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으며, 이 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해당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표 7에 제시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애착에서 학교적응으로 향하는 총 효과는 비표준화된 계수를 기준으로 .545였으며, 부모애착에서 학교적응으로 향하는 직접효과는 .492로 나타났다.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거치는 간접효과의 크기는 역시 비표준화된 계수를 기준으로 .054였으며, 95% 신뢰구간은 .010에서 .147로 나타나 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접효과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통한 간접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7

Bootstrap 기법을 이용한 간접효과 유의미성 검증결과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95% BC)
부모애착 ⇨ 문화적응스트레스 ⇨ 학교적응	.545***	.492***	.054 (.010 - .147)

*** $p < .001$, 제시된 값은 비표준화된 계수임

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애착, 학교적응,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관계를 알아보고, 부모애착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을 설정하여 세변인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매개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학교적응, 문화적응스트레스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는데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애착은 학교적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문화적응스트레스는 학교적응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으며,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을수록 학교적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남상아, 백지숙(2011)과 전성희(2010), 이지영(2016)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부모애착에서 부애착, 모애착과 학교적응, 문화적응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좀 더 살펴보면, 학교적응에 있어 부애착이 모애착보다 좀 더 유의미하게 관계가 있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부애착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반면, 모애착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부모애착과 적응의 연구에서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또래와 친밀감이 높고 진로결정과 학교적응이 높다(이지민, 오인수, 2013; 황미경, 허균, 2010)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나 이윤호(2009)의 연구에서 부애착이 학교적응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지 않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애착에 관한 추가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부애착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관계를 조심스럽게 예측한다면,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어머니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한계로 자녀양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개입이 많아지면서 아버지의 친밀하면서 허용적 태도(이지민, 오인수, 2013)가 자녀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한 청소년시기가 되었을 때 학교적응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이고 올바른 부모역할 교육과 청소년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참여의 기회가 폭넓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애착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애착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계하여 부모와의 안정적 애착관계일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는 감소하며,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을수록 학교적응은 높았다.

즉, 부모애착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매개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부모와의 안정적 애착관계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높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을 때 학교적응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부모애착과 청소년의 스트레스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자신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환경속에서 자신을 탐색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서적 안정기반으로서의 부모와의 안정적 애착이, 청소년시기의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발달과업과 이중문화에 대한 적응 스트레스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에서 완화하고(Liu, 2006),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며(옥정, 오윤희, 정현옥, 2001; Raja, McGee & Stanton, 1992), 청소년기에 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김주용, 이지연, 2007; 신현숙, 2005; Chang & Farrehi, 2001; Collins, 1996)하게 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결과를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반면 불안정 애착관계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학교부적응이 가중될 수 있어 문화적응스트레스를 통한 학교적응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사회적 편견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지각하여 부정적 정서를 더욱 느끼거나 주류문화에 대한 저항, 적대감과 같은 부적응적인 문제로 이어지면서 학교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개입에 있어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다룸과 동시에 애착의 문제를 직접 다루기 어려울 때, 학교생활에 받는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개입이 중요해 진다. 이는 강유임(2012)의 모애착과 심리적응의 연구에서도 제기 된 바와 같으며 비 다문화가정 청소년과의 집단상담,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건강하게 발달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이중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통합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LaFromboise, Coleman, Gerton(1993)이 제안한 이중문화주의 이론에 따라 주류문화와 비주류 문화의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타협이 아닌 두 문화의 정체성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자신의 이중 문화에 대한 신념과 가치를 수용하고, 실제로 다양한 이중문화의 역할수행과 이중 언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한 성공경험은 두 문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양쪽문화에서 의사소통하는 ‘문화중재자(Cultural Broker)’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적 개입에 있어 비 다문화가정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넘어 학교현장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문화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기반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 및 학교환경에서 다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는 문화조성과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교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의 실무자의 다문화적 민감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또래로의 수용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비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실제적인 다문화 이해와 교육, 문화적응 훈련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청소년뿐만 아니라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과 차별 등 우리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상담개입에 있어 상담자의 다문화 적응을 위한 다양성의 존중, 문화적 성찰과 평가, 문화적 적절한 태도와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태도는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상담 시 효과적인 개입전략으로 매우 중요할 것이며(Mason, Benjamin & Lewis, 1996).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동기부여 및 관계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문화적응의 문제해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Mistry et al., 2009; Harris et al., 2001; Resnicow, Soler, Braithwaite, Ahluwalia & Butler, 2000).

이를 종합하여 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 상담과정에서 부와 모의 애착을 함께 다루는 것은 이중 문화 환경에서 성장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부모가 문화적응과정의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 즉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또 다른 문화중재자로서의 아버지가 이중 문화를 다루는 방식과 역할이 자신의 이중 문화 정체성에 어떻게 관계되고 부모 애착관계가 학교적응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성찰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수혜자적 입장이 아닌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학교환경에서 긍정적 역할부여와 이를 위한 수용적 환경조성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발달과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긍정적인 자기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주요한 사회적 공간인 학교적응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청소년기의 부모애착과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관계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애착과 적응의 대다수의 선행연구가 결혼이주여성인 모애착과 유. 아동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있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증가에 따른 학교적응 과정에서 주요 지지원인 부와 모를 포함한 부모애착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적절하였다고 본다.

둘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개입에 있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적인 전략지침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라남·북도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외 지역의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모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120명이라는 비교적 적은 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 다른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동일한 모형이 반복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이중문화가 공존하는 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측정한 척도는 주로 외국의 이주민, 유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을 김은경 (2016)이 한국형에 맞게 보완, 수정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추후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다양한 후속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정에서 느끼는 이중 문화와 스트레스의 경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있어 밀접한 부모애착에 있어 선행연구는 주로 모애착과 적응과의 관계에 한정하거나, 부모애착을 다룬 경우 연구마다 결과가 상이하였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적응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의 애착과 모의 애착에 관한 다양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본 연구모형에서 부모애착과 학교적응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는 확인하였으나 부애착과 모애착이 각 각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상이한 영향력은 밝히지 못하였다. 각 모형에서 부애착의 매개모형은 적절하였으나, 모애착이 문화적응스트레스로 가는 경로에서 유의미하지 않아 검증이 어려웠다. 하여 부애착과 모애착이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매개한 학교적응에서의 심리기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있어서 부모와의 애착관계만을 보았으나, 사회화가 확장되는 청소년시기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또래애착과의 관계를 통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 과정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과정이 후속연구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금명자, 이영선, 김수리, 손재환, 이현숙, 김민정 (2006) **다문화가정 청소년(혼혈청소년)연구: 사회적응 실태조사 및 고정관념 조사**.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상담원.
- 강유임 (2012). 다문화가정 아동의 모애착과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정적 대처기제의 중재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1(1), 19-42.
- 김민정, 김희영 (2015).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부모와의 관계, 대처전략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0(2), 367-385.
- 김순중 (2007). **초등교원의 사기저해 요인의 분석을 통한 근무의욕 제고 방안: 전라남도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남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김승경, 양계민 (2012).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이중 언어요인, 이중문화요인 및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11), 147-176.
- 김은경, 김종남 (2016).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다문화교육연구**, 9(4), 21-43.
- 김주용, 이지연 (2007). 어머니의 낙관성과 긍정적 강화가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아동의 낙관성을 매개변인으로. **아시아교육연구**, 8(3), 115-136.
- 남상아, 백지숙 (2011). 다문화가정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과 초기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9(1), 3-12.
- 도현심 (1999).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또래경험과 초기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3), 33-49.
- 성영혜 (2000). **치료놀이 I**. 서울: 서울형설출판사.
- 신현숙 (2005). 청소년의 낙관성 및 비관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에서 대처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2(3), 165-192.
- 심미영, 이둘녀, 박종옥 (2013) 다문화 가정아동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중문화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5, 233-254.
- 여성가족부 (2013).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제11779호)**. <http://www.>

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

- 정해숙, 김이선, 이태면, 마경희, 최윤정, 박건표 외 (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분석**(연구보고 2016-03).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오성배 (2005).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교육**, 32(3), 61-8.
- 오성배 (2007).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교육 기회 실태와 대안 모색. **인간연구**, 12, 33-56.
- 옥정, 오윤희, 정현옥 (2001). 청소년기 애착유형과 지각된 부모양육행동: 재소중인 비행집단, 위험집단, 정상집단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2), 259-270.
- 유안진, 이점숙, 정현심 (2006a). 정서 조절양식과 부모애착이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7(1), 167-181.
- 유안진, 이점숙, 정현심 (2006b). 또래애착과 정서조절 양식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31-41.
- 은선경 (2010). 다문화 가족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가족 기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3, 37-74.
- 이규미 (2005). 중학생 학교적응 구성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 치료**, 17(2), 383-398.
- 이규미, 김명식 (2008). 중학생 학교적응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1), 27-40.
- 이사라, 박혜원 (2005). 중국 조선족 아동의 어머니와의 애착이 자아개념, 또래관계 및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9), 109-127.
- 이상균, 박현선, 노연희, 이채원 (2012).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변용스트레스 및 문화 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자기개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 아동복지학**, 38, 235-264.
- 이승중 (1995).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체계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주 (2007). 국제 결혼한 여성의 자녀에 대한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83-105.
- 이유경 (2012).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아동의 부모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윤희 (2009).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을 높이는 애착,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 영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윤, 이정아 (2004).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요인. **한국심리학 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61-276.
- 이지민, 오인수 (2013). 다문화 가정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 및 애 착이 진로장벽 인식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 과학연구**, 44(3), 193-216.
- 이지영 (2016).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변용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담 심리교육복지**, 3(1), 33-39.
- 이지윤 (2000).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애착 및 사회성간의 관계**. 서강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진숙, 정혜정 (2004). 청소년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학교적응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3), 47-61.
- 전성희 (2010). **다문화가정 자녀의 모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영달 (2006).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주동범 (1998).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인지양식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진은영 (2015).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심리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중문화역량의 매개효과와 성별차이. **학교사회복지**, 32, 303-326.
- 최선화 (2009). **다문화가정 아동의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통계청 (2015). **다문화 인구 동태 통계결과**.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bSeq=&aSeq=357476&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에서 2017년 10월 14일 인출
- 통계청 (2016). **국제결혼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 PageDetail.do?idx_cd=2430에서 2017년 10월 14일 인출
- 황미경, 허균. (2010). 동북아 지역의 다문화가정에서 부모의 애착관계가 아동의 사회 불안심리에 미치는 영향. **동북아문화연구**, 23, 277-287.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 Barrett, P. M., Sonderegger, R., & Sonderegger, N. L. (2002). Assessment of child and adolescent migrants to Australia: A crosscultural comparison. *Behaviour Change*, 19(4), 220-235.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 5-34.
- Berry, J. W. (2002). Psychological, sociocultural, and marital adaptation of Turkish immigrant couples in Canada.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7(1), 13-26.
- Berry, J. W. (2003). Conceptual approaches to acculturation. In K. M. Chun, P. B. Organista, & G. Marin (Eds.), *Acculturation: Advances in theory, measurement, and applied research* (pp. 17-39).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los, P. (1967). The second individualization process of adolescence. *Psychoanalysis of Study Child*, 22, 162-186.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Chang, E. C., & Farrehi, A. S. (2001). Optimism/pessimism and information-processing styles: Can their influences be distinguished in predicting psychological adjustm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1(4), 555-562.
- Collins, N. L. (1996).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Implications for explanation, emotion, and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4), 810-832.
- DuBois, D. L., Eitel, S. K., & Felner, R. D. (1994). Effect of family environmen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on schoo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405-414.
- Grotevant, H. D., & Cooper, C. R. (1985). Patterns of interaction in family and

- the development of identity exploration in adolescence. *Child*, 56, 415-428.
- LaFromboise, T., Coleman, H. L. K., & Gerton, J. (1993). Psychological impact of biculturalism: Evidence and Theory. *Psychological Bulletin*, 114(3).
- Liu, Y. L. (2006). Paternal/Maternal attachment, peer support, social expectations of peer interaction, and depressive symptoms. *Adolescence*, 41(164), 705-722.
- Lopez, F. Gl., & Brennan, K. A. (2000). Dynamic processer underlying adult attachment organization: Toward an attachment toward an attachment theoretical perspective on the healthy and effective self.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283-301.
- Papini, D., & Roggman, L. (1992). Adolescent perceived attachment to parent sine relation competence, depression, and anxiety: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Early Adolescent*, 12, 420-440.
- Raja, S. N., McGee, R., & Stanton, W. R. (1992). Perceived attachments to parent and peer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4), 56-68.
- Reinert, H. R. (1976). *Children in conflict: Educational strategies for the emotionally disturbed and behaviorally disordered*. Saint Louis: The C. V. Mosby.
- Rice, K. G. (1990). Attachment in adolescence: Anarrative and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19, 511-538.
- Sandhu, D. S., & Asrabadi, B. R. (1994). Development of an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1), 435.
- Shaver, P. R., & Mikulincer, M. (2007). Adult attachment strategies and the regulation of emotion. In J. J. Gross (Eds.), *Handbook of Emotion Regulation*. New York: Guilford Press.
- Sirin, S. R., Ryce, P., Gupta, T., & Rogers-Sirin, L. (2013). The role of acculturative stress on mental health symptoms for immigrant adolescents: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49(4), 736-748.

- Spencer, M. B. (1996).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s on school adjustment: The application of an identity-focused cultural ecological perspective. *Educational Psychologist, 34*, 43-57.
- Torres, L. (2010). Predicting levels of Latino depression: Acculturation, acculturative stress, and coping.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6*(2), 256-263.
- Van Oudenhoven, J. P., & Hofstra, J. (2006). Personal reactions to 'strange' situations: Attachment styles and acculturation attitudes of immigrants and majority member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0*(6), 783-798.
- Weiss, B. (1982). Attachment in adult life. In C. Parkes, & J. Stevenson-Hinde (Eds.), *The place of attachment in human behavior* (pp. 171-184). New York: Basic Books.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school adjustment in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mediating effects of cultural adaptation stress

Choi, Kyungran* · Hong, Ji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cultural adaptation str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school adjustment in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A total of 120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took part in the stud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3.0 and the AMOS 22.0 programs.

The study found that first, the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e following: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 attachment and school adaptation was a significant static correlation, parents attachment and culture adjustment stress, culture adjustment stress, and that school adaptation were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Second, cultural adaptation stress played the role of a partially medi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school adjustmen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shows that cultural adaptation stress can act as a mediating variab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school adjustment.

Key Words: parental attachment, school adjustment, cultural adaptation stress

투고일: 2017. 12. 11, 심사일: 2018. 1. 29, 심사완료일: 2018. 2. 13

* Jeonju University

** Jeonju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jiyounghong@jj.ac.kr